# 민주당, 재난대책위 구성…"폭넓고 깊게 지원해나갈 것"

### 최고위에서 재난대책위구성 및 인선 밝혀
### 이성만 의원 위원장 맡아…상황실 등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태풍 힌남노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보였는데 당 차원에서도 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재난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병덕 의원이 간사직을 맡았다.

이외에도 강준현, 김종호, 민병덕, 박영순, 김성환, 송재호, 신현영, 오영환, 유기홍, 윤재갑, 이학영 ,한준호, 허영 의원 등이 대책위에 참여한다. 이날 최고위를 통해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태풍 힌남노로 긴급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포항시 남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활동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포항시 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였다"며 "재난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을 보완해서 폭 넓고 깊게 지원하겠다. 이 문제는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위원회 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포항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측도 하기로 했고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신속 보완 등은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확대와 복구지원 확대는 경북도당과 그리고 행안부에 요청을 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보냈고 앞으로 체크해서 힌남노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일상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 박홍근 "대통령실 의혹 발본색원"…野 진상규명단 발족

### 민주 진상규명단 첫 회의…"국정조사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면서 국정조사 추진,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진상규명단 운영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에서 "기재위, 국방위, 예결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단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묶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살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도 잘못된 충정으로 대통령 내외 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며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은 검토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마추어 정권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또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은 급기야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공사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까지 번졌다"며 "대통령 친척과 지인 아들, 김건희 여사 회사 직원을 사적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 민낯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통실 의혹에 민심은 들끓었고 국민 요구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게 됐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각종 특혜 의혹과 권한 남용을 극구 외면하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해 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핵관에 둘러싸여 국정을 등한시하고 여당은 내홍에 정신없는 사이 대통령실은 연일 사건 사고의 연속"이라며 대통령실 사진 유출, 대통령 일정 공개 사건을 지적했다.

이어 "낯 뜨거운 외교 참사, 의전 사고는 대한민국 국정마저 위태롭게 한다"며 "인적 쇄신을 한다면서 기준 없는 내부 감찰로 하급 실무진만 무더기 교체하더니 욕상시, 검핵관들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는 "민심은 국정 최대 문제가 대통령이라고 한 목소리인데, 책임 참모는 직언을 못하고 직원에게 대통령이 돼 달라니 답답하다"며 "이러니 일각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국정조사 감이란 주장 나오는 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족한 진상규명단은 집무실 및 사저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 대응을 위한 상임위별 활동 컨트롤타워 성격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단장은 재선 한병도 의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엔 박 원내대표와 한 단장 외 같은 당 이탄희, 천준호, 최기상, 위성곤, 고민정, 김영배, 김병주, 김의겸, 장철민 의원이 참여했다.

김재환 기자

# 국민의힘, 오는 19일 원내대표 선거

### 송언석 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 맡아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17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합동 토론회는 열리지 않는 대신 1차 투표 시 후보 별로 7분간 정견을 발표한다. 결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한다.

현재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군은 10명 이상이다. 5선인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필두로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3선)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재선 그룹에서는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출 방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일각에서는 전직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선을 통해 후보군의 역량을 가려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많다. 더욱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원내대표를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것은 관례에서 보지 못했다"며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뽑히는 거니까 당에 있는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후보군으로 기울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2표 중 81표를 얻어 조해진 의원을 누르고 윤석열 정부 첫해 집권여당의 사령탑이 됐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승리 배경에는 유력 후보였던 김태흠 의원이 윤 대통령의 권유 끝에 충남지사로 선회한 일이 있었다. 새 비대위가 친윤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윤심을 업은 후보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